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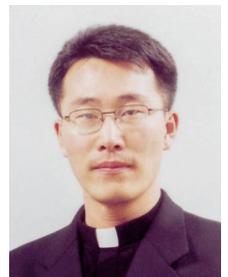
두 아들의 모습을 가진 우리

우리는 오늘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작은아들과, 처음에는 거부하였지만 결국 회개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맏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만 앞서는 사람,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이나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하는 약속 가운데에서도 종종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부터 남을 미워하지 않겠다.'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겠다.' '오늘부터 죄를 짓지 않겠다.' '오늘부터 작은 봉사라도 실천해보겠다.' 등등. 하지만 그 약속을 지켜내기란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각자의 체험을 통해서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이러한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너무 쉽게 자신에 대해서 자책, 자학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하느님은 이러한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께서 더 원하는 모습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자신을 너무 자책, 자학하지 않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말만 앞서고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자신의 부족하지만 솔직한 모습이라면,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회개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맏아들의 모습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이중성'을 그대로 묘사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의 모습이 '이렇다' '저렇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모습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얼마나 변화하고자 하는가 하는 '결단'이 더 중요함을 오늘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내 모습이 어떻다 해서 판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 내 모습이 하느님께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신앙생활일지라도 주님께서 지금 내 모습만 가지고 단죄하시지는 않는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하며 주님의 뜻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변화된 삶을 살고자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또 다른 '맏아들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철현 바오로 신부 | 중앙동본당 주임



제 1 독 서 예제 18,25-28
화 답 송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제 2 독 서 필리 2,1-11 또는 필리 2,1-5
복 음 마태 21,28-32

주일 진레

참 신앙인, 선한 사람들

김시탁 스테파노 시인/ 가톨릭 문인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나는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될 때가 있다. 아무 대가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한 일을 생색내지 않고 늘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보이지 않는 뒷마당을 비질하는 고마운 사람들이다. 그들을 보면 마음이 숙연해져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나는 과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한 적이 있는가. 작은 일에 침소봉대하지 않았는가.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참 신앙인으로서 선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가 없는 마음으로 생각을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곱게 다듬은 말을 내놓음으로써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다. 행여 일이 잘못되면 자기 탓으로 돌리고 늘 미안해하고 감사해하며 고맙게 생각한다. 빵을 나눌 때는 육안으로 드러나게 자기 것을 작게 가지므로 불평을 잠재운다. 양보하고 배려하는 심성에 열심히 물 주며 여유의 그릇에 감성과 이성을 만나게 비벼 먹고 영혼의 살을 찌울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삶의 질감이 맑고 담백하고 투명하여 앉은 자리는 빛나고 뜬 자리는 그리움이 고인다. 옥수수 대궁을 적시는 빗소리처럼 아름답고 대나무 숲에 세 든 바람처럼 청량하다. 내가 봐도 좋은데 하느님 보시기에 오죽 좋겠는가.

우리 구역에도 그런 선량이 있다.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며 늘 얼굴에 함박웃음을 달고 다닌다. 발을 밟아도 성은커녕 밟혀서 미안하다고 할 사람이다. 그들 부부는 서로 쳐다보면 웃는다. 실성해서가 아니다. 모로 보나 거꾸로 보나 좋으니 이빨에 고춧가루가 붙어있어도 좋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바로 비교된다. 구역장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모임에는 다 착한 사람인데 유독 한 사람만 보통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게 누군지는 옆집 개도 안다. 아내에게 물어봤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면 나 같은 사람 만날 거냐? 고. 대답 대신 먼 산 쳐다보는 아내의 얼굴에 서산 그림자가 덮였다. 아무래도 이 생이 끝나면 아내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으니 지금부터라도 잘하는 수밖에 없겠다. 유행가 가사도 있지 않은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선교는 삶을 선하게 사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끌려 다가가면 결국 주님의 품이니까. 목청 높일 것도 없다. 선하게 살자. 그게 어려우면 선한 사람 따라 하더라도 해보자 선한 사람 그늘엔 습기도 없어 향기롭고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핀다.

사도행전 읽기 12

염철호 요한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요한 마르코의 귀환(13,13)

바오로 일행이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팜필리아의 페르게로 갈 때 요한 마르코는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페르게에서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로 가는 험준한 안티타우루스 산맥 때문에 겁을 먹은 듯합니다. 이 산맥은 겨울에는 눈 때문에, 그 외의 시기는 산적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넘기가 매우 어려운 산맥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산맥을 넘으려는 이들은 함께 모여 돈을 모아 사병을 사야 할 정도로 산맥을 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바오로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마르코 때문에 화가 나서, 2차 선교여행에는 그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그로 인해 바르나바와 갈라서기까지 합니다(사도 15,38-39 참조). 하지만 나중에 바오로는 마르코와 화해하여 그를 아주 요긴하게 사용합니다(2티모 4,11).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유적

그림출처: 가톨릭평화신문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선교(13,14-52)

안티오키아에 도착한 일행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13,15를 보면 율법과 예언서 봉독이 끝나자 회당장이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청했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 회당 관습과 잘 부합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을 방문한 이들 가운데 율법에 정통한 이를 청해 율법 해설을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런 관습을 배경으로 바오로가 설교하게 되었는데, 바오로는 이집트 탈출부터 시작하여, 40년의 광야 생활, 판관 시대부터 다윗 임금 시대에 이르기까지 구약성경 전체를 아주 짧은 말로 요약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한 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단언합니다. 더 나아가 신약 가운데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임을 설교합니다(사도 13,16-41).

바오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바오로를 따릅니다.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오로를 모독하며 반박하자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른 민족들에게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선언합니다(사도 14,46). 사도 18,6에서도 바오로는 코린토의 유대인들에게 이 선언을 한 번 더 내릴 것입니다. 이처럼 루카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간 것이 유대인들의 배척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 편인 이방인들을 선동해 바오로 일행을 박해하며 그 지방에서 쫓아버립니다. 그러자 바오로의 일행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루카 10,11) 발의 먼지를 털어버린 뒤 이코니온으로 갑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스승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학생, 투명해져야 할 이름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문학을 번역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작가는 여기저기에 수많은 의미의 수수께끼를 남겼고, 이제 그것에 직면해야 한다. 문체의 흐름에 정신을 맡기고, 다른 언어와 문화의 벽에 부딪히고, 작품의 상승과 하강에 동참해야 한다. 외국어로 쓰였을 소설이 한국어로 쓰인 소설처럼 읽히는 새로운 경험, 그러면서도 원전의 강력한 힘을 향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한다.

두 번째 은유, 번역가는 거울이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은 작품의 ‘보이스(목소리)’를 듣는 능력이다. 흡사한 말로 대체한다면, 그것은 문학적 해석력일 것이다.

번역의 세 번째 속성은 신탁이다. 원전에서 들려오는 계시에 온전히 몸을 내맡기는 감수성과 헌신성 없이, 어떤 종류의 문학 번역은 아예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번역은 가장 깊은 읽기(deep reading)이다. 속독과 다독, 다시 읽기와 깊이 읽기 등 읽기의 형태는 여러 가지이나, 이중 번역과 편집에 필요한 읽기는 가장 큰 낙차를 건디는 깊이 읽기다. 이 자질을 위해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지성으로 뒷받침되는 균형 감각이다.(박여영, “인트로”, Axt 31)

신학생은, 신神을 번역해내고자, 그분의 뜻과, 그분이 보내신, 그분과 같은 분의 삶과 가르침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삶으로 소화해내며, 소화한 것을 전달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어느 과정도 단순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원리로 따지면 지극히 단순합니다. 이해하고, 소화하고, 전달할 것은 오직 하나, 사랑입니다.

화용론적 번역의 중심에는 독자가 있다. 우리말 사용자가 역서를 자연스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럴 때 ‘제2의 창작’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 역자는 그 모든 과정에서 최소한의 흔적을 남기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운다는 점에서 여전히 겸손한 그림자이지만, 또한 저자와 독자의 소통을 이어주는 매개자이기도 하다.(김한영, “연탄재를 위한 변명”, Axt 31)

백성을 위한 삶을 준비합니다. 그분과 백성 사이에서, 자신을 우쭐대지 않는 겸손함과, 분명한 나침반이 되고 탄탄한 다리를 놓는 당당함을 겸비합니다.

번역가가 투명할수록 작가의 마술이 신묘한 효험을 발휘한다고, 나는 믿고 있다. 작가와 독자 사이에 투명 망토를 두르고 서서, 작가와 직접 대면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 독자들을 지켜보는 즐거움이 퍽 짜릿하다. 번역가는 작품에 공감하고 감정을 이입할수록 투명해진다.(허유영, “번역과 마술 사이”, Axt 31)

투명 인간이라 말하는 그런 존재감 없는 투명이 아닙니다. 그분을 닮아 존재감이 ‘뚜렷’해서, 그분께 겹쳐도 흐리지 않고 백성의 눈앞에도 방해가 되지 않는 투명입니다.

형체도 색깔도 없는 물, 생명이 있는 어디든 물도 함께합니다.

그 어떤 틀에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형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온갖 색을 투영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은 자기가 없으면서 존재합니다. 어떤 틀과 색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품고 수용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자기를 잃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장소나 환경에도 적응하고 누구와도 어우러질 수 있는, 하지만 절대 자기 본질과 중심을 잃지 않는 지혜.(허성석, 물의 지혜, 『중용의 사부, 베네딕도의 영성』)

맛나고 멋나는 물이 아니라 맹물일수록, 물다운 물입니다. 그게 물맛이고 멋입니다.

사랑의 행위는 언제나 고백이다,라고 카뮈는 썼다. 조용히 문을 닫는 것도 고백이었다. 한밤중에 터뜨리는 울음과, 계단에서 넘어지는 것, 거실에서의 기침도 마찬가지였다.(니콜 크라우스, 위대한 집, 386)

창작자가 표현하는 사람이라면 번역가는 인용하는 사람이라고 구분할 수도 있겠다. 그 문장이 전하는 어떤 경험을 알아볼 수는 있고, 그것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나의 경험을 내 밖에 내어놓는 것이 된다. 니콜 크라우스의 문장을 빌리자면 “옮기는 것도 고백이었다”라고 말할까...

내가 듣는 음악은 바흐가 그린 악보가 아니라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그의 음악이다. 동일한 악보에서 서로 다른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은, 연주자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고, 연주자가 원작에서 감지한 경험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번역가가 자신의 경험만 참조해가며 옮긴다면, 그것은 언제나 원문의 뜻을 곡해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건 한계다.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번역자는 무엇보다도 한계를 가진 사람이다. 번역가가 정답을 보여주는 이가 될 수는 없다. 그는 자신이 읽은 것을 제안하는 사람에 가깝다. ‘나는 이 책을 이렇게 읽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것은 분명 하나의 ‘발언’이기도 하다.(김현우, “번역, 그 소심한 말 걸기”, Axt 31)

백성과 똑같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어야 하는, 유혹에 놓이고 죄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체험으로 그분의 뜻을 곡해할 수 있는 한계도 있지만, 자신의 체험으로 그분의 뜻을 더 공감 가고 아름답게 빚어낼 수 있습니다. 이이가 보여주는 것이 정답은 될 수 없지만, ‘나는 그분을 이렇게 읽었고 체험했습니다.’라고 삶으로 발언하는 이, 그런 면에서 그는 예언자預言者가 됩니다.

좋은 번역이란 어쩌면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세계가 열려 소통하는 기적이 벌어지는 장場이며, 그것이 발생하기 위해 축적되어야 하는 시간과 지식과 훈련과 고됨은 평생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의미를 탄생시키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그러하듯 사랑이 없다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믿는다.(박여영, “인트로”, Axt 31)

신학생은 사제가 되어도 신학생입니다. 그분의 세계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평생을 다해 축적해나가는 삶에서 늘 신학생입니다. 축적해나가는 것을 멈추면, 교만해지고 비굴해지며, 흐려지고 방해가 되며, 뜻을 곡해하고 ‘막’ 말을 합니다. 신학생은 사랑이신 그분을 번역해 계속 써 내려갑니다. 그리하여 조금씩이라도 더 투명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사랑에서 영감을 받았을 때 붓을 들며 마음속에서 사랑이 구수口授하는 대로 글을 써 나간다.(단테, 신곡, 김문해 역, 연옥편 제24곡)



교구/본당

성직자 모여 성묘
일시: 9월 28일(월)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하반기 교리교사 연수 책자 신청
'하반기 교리교사 연수'가 취소됨에 따라, 책자만 신청받습니다.

내용: 2021년 교리교안 보급
주제: 주님의 기도
대상: 주일학교 교리교사
연수책자비: 7천 원
신청: 9월 27일(주일) 17:00까지 신청서 발송 및 연수 책자비 입금
※ 마감 이후 신청 불가
문의: 청소년국 055·249·7051~2

3차 청년교리 연수

일시: 10월 10일(토) 14:00~11일(주일) 14: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
대상: 가톨릭 신앙을 가진 모든 청년
참가비: 1인 6만 원
주제: 교회의 시선으로 세상 바라보기
신청: 10월 4일(주일)까지, 선착순 20명 마감(전원 1인실)
준비물: 필기구, 미사 준비, 세면도구(수건), 텀블러, 마스크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 검색

위원회/기관/단체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화) 10:30 교구청
창원: 1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1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파나) 010·4490·6996

수도회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말씀묵상 피정, 전례피정)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전례봉사자 교육
문의: 010·2116·4903

재속프란치스코형제회 지원자 모집

성프란치스코의 가르침과 영성에 따라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실천하고자 교황청이 인준한 회칙과 회헌으로 서약생활을 하는 공동체
대상: 만55세 이하의 세례 받은 신자
문의: 봉사자 010·5230·1420, 서기담당 010·5911·8792

기 타

부산가톨릭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 9. 23.(수) 09:00~28.(월) 18:00
모집학과: 간호학과 외 17개 학과
전형: 성직자추천전형 등 8개 전형
문의: 입학사정관 권혁민(루카) 051·510·0705
www.cup.ac.kr/ ipsi.cup.ac.kr

2021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총장 김정우 요한 신부) 수시모집 안내

전국최대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가톨릭지도자추천(간호, 심리, 사회복지, 경찰행정 등)
모집: 3,017명(수시 2,635명)
문의: 053·850·2580

2021학년도 노비따스 음악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모집: 10월 16일(금)~26일(월)까지
인원: 2021학년 중학교 1학년 12명
대상: 사회복지(양육)시설 거주 여학생
학교: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한서로 210번길 325
소속: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
문의: 교)031·584·1130, 행)070·8953·1009
교감)070·4129·707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직원(정규직) 채용

분야: 사무직 1명, 조리직 1명
제출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 알림마당/ 알림 참조
접수: 10월 30일(금) 14:00까지
문의: E-메일-mano@cbck.kr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국내 입양 전문 기관

문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02·764·4741~3
www.holyfcac.or.kr

SM 수맥홍(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1588-5335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합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055.391.1205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 2중 세트 10개 1박스 /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010-2652-0706

40년 전통 <팔보효소>
PALBO 생활절식 · 효소단식
▶미 · 중국 수출 ▶부모님 건강 선물
▶간헐적단식 ▶해독요법 ▶효소피정
▶지리산 산청 발효 · OEM 전문
www.palbo.co.kr ☎1600-0830



일 림

덕산동본당 제14대 사목협의회 개편

- | | |
|----------------------|------------------|
| 사목회장: 양춘석(미카엘) | 교육분과장: 정미경(비아) |
| 사목부회장(남성): 남기훈(요셉) | 홍보분과장: 박혜경(베로니카) |
| 사목부회장(여성): 천선금(체칠리아) | 구역분과장: 노필자(데레사) |
| 총무: 이계운(요한) | 복지분과장: 김민호(요한) |
| 재경분과장: 이재희(요한) | 가정분과장: 반미경(가타리나) |
| 전례분과장: 김미경(가타리나) | 시설분과장: 배태균(미카엘) |
| 복음화분과장: 진정화(비비안나) | 청소년분과장: 차문경(요안나) |

+ 김길상 신부 모친 선종

김길상 안드레아 신부(회원동본당 주임) 모친 윤차두(마리아)님께서 9월 15일(화) 선종하여 가족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유가족 일동 -



신간소개

파란波瀾, 찬란燦爛

가톨릭문인회 조정자·유희선·황광지 작가가 펴낸 3인3색 신앙수필집

세 분의 작가는 삶의 소중한 파편들을 들려준다. 자신을 만들어 준 과거의 이야기도 있고,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도 있다. 이 삶의 파편들을 모으는 작업은 하느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었으리라.

-정연우 신부(교구 미디어국장)-

- 출판: 불휘미디어
- 구입문의: 055·244·2067



제14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미디어국(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 (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프로세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고통 속에서 찾는 응답-박완서의 『한 말씀만 하소서』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26살. 앞날이 창창하던 아들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다. 귀하디 귀한 외아들이자 엄마의 자라던 아들이었다. 박완서의 『한 말씀만 하소서』는 작가가 통곡으로 써 내려간 일기 형식의 글이다.

그 당시 박완서는 ‘자식 삼켜먹은 에미’라는 등 뒤의 수군거림이 들리는 듯하여 사람들의 조의도, 방문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고, 자식을 잡아먹고도 살겠다고 음식을 먹는 자신이 모멸스러워 먹는 대로 다 토해낼 정도로 극한의 고통 속에 있었다고 고백한다. 사람은 자신이 겪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신에게 기도한다. 그러나 ‘자식의 죽음을 앞에 놓고도 그러한 기도가 나올까?’

그래, 나는 주님과 한번 맞붙어보려고 이곳에 이끌렸고, 혼자 돼보기를 갈망했던 것이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시지,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어머니 박완서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한 딸은 부산에 있는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온다. 딸 집에 기거하는 동안 박완서는 마음 놓고 울지 못하는 고통에 시달린다. 작가는 온전한 자기만의 시간, 그래서 마음 놓고 몸부림치며 짐승 같은 울음을 내지를 수 있는 공간이 절실했다. 그래서 오랜 지인인 이해인 수녀의 제안으로 부산 분도 수녀원에 머물게 된다.

작가가 수녀원에 머물기로 결심한 이유는 ‘참척’의 고통에서 벗어나거나 괴로운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가 아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그에 대한 하느님의 해명을 듣고 싶어서다. 말하자면 하느님께 따지기 위해서다.

기도 중에 하느님의 한 마디 말씀이 기적처럼 들려오고, 그 기적의 말씀으로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종종 있다. 그러나 그런 신비 체험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도 아니며, 극한의 고통 상태에서 ‘한 말씀’의 치유 능력을 기대하고 기도에만 매달리기엔 내 고통이 너무 크다. 그래서 작가가 하는 기도는 왜 이런 큰 고통을 주는지 답해 달라는 것, 나아가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 ‘더 이상’ 남은 가족에게는 해코지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느님과의 거래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가장 인간적이면서 서글픈 거래, 그게 극한의 고통 속에 있었던 당시의 작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였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에 대한 응답, 그토록 원하던 하느님의 ‘한 말씀’은 너무나 의외의 순간에 듣게 된다. 자신이 수녀원에 들어오기 전 일화라면서 한 어린 수녀님이 이야기하는, 정말 사소한 한 경험담에서 작가는 주님의 ‘한 말씀’을 듣는다.

수녀님 집에서는 그 남동생이 어찌나 고약하게 구는지 하루도 집안이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한다. 수녀님은 ‘왜 하필 내 동생이 저래야 되나?’ 하며 비관도 하고 원망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세상엔 속 썩이는 젊은이가 얼마든지 있다. 내 동생이라고 해서 그래서 안 되란 법이 어디 있나?’라고 생각을 고쳐먹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동생과의 관계도 호전되더라는 이야기이다.

박완서는 ‘왜 내 동생이 저래야 되나?’와 ‘왜 내 동생이라고 저러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간발의 차이 같지만 실은 사고의 대전환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주님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라고 원망할 게 아니라 ‘왜 나라고 이런 고통을 받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라고 바꾸어 생각하면 될 일이다. ‘내가 뭐 관대...’라면서 나의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으면 된다. 이것이 바로 박완서가 그 크나큰 고통에서 조금씩 빠져나올 수 있게 한 ‘한 말씀’이었다.

주여,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너무 집착하게는 마옵소서.

박완서의 마지막 기도는 다시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보석 같은 작품들을 남겼다. 이 시대의 아름다운 작가 박완서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작가가 그토록 갈구한 주님의 ‘한 말씀’ 덕분일 것이다.